

4·11 총선 표밭은 지금

광주 동구

‘호남정치 1번지’... 민주 4·무소속 2명 경합

4·11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가 아직 공천 방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안전국민경선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들은 밀바닥 민심을 잡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20개 선거구의 예비후보들과 그들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중간 관세 등을 분석해보는 ‘19대 총선 현장’을 연재한다.

Table with 6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약력. Lists candidate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무소속, 민주통합당, and 무소속.

박주선-양형일 경선 ‘리턴매치’ 주목 관료출신 이병훈 뒤늦게 도전장 ‘선전’ 정영재 경선 출마, 박현·박동수 출사표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구는 역대 신기하 의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선 의원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구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만큼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민주당 공천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현재 광주 동구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2명 등 총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치구로 조성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 의원과 양 전 의원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최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박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료 출신인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뒤늦게 도전장을 내밀고 ‘선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하고 제대로 운영시킬 동력을 만들 것”이라며 동구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3만 5000개의 젊은 층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통해 광주와 동구를 아시아문화경제 1번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젊은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세력을 넓혀가

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을 역임한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도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경선에 뛰어 들었다. 시민사회운동 경력과 남북평화운동 경험을 내세우며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의 바람’을 외치고 있다. 최근에는 박 현 청와대 공보국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는 무소속 출마 배경으로 ‘안철수 현상’에 따른 기성정치권 외면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합당이 선거용 정당을 급조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구태정치 이벤트라는 점을 들었다. 빛고을 나눔문화연대 동구지회 박동수 부회장은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어 분주히 표밭을 갈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마했다”면서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호응

3주 동안 총 63건 접수

광주시에 생활불편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

터 시작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이날 현재까지 총 6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주차차 17건, 도로파손 등 공공시설물 훼손 17건, 쓰레기 방치 9건, 에너지 과소비 7건, 가

로등과 신호 등 고장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5건, 북구 12건, 동구 10건, 광산구 5건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이 도로파손, 가도등 고장, 불법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

비스다.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내용의 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이용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산물 가공·유통에 1329억 투자

전남도,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49개 사업

전남도는 24일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가공식품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49개 사업에 총 132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14곳, 미곡종합처리장(RPC) 건립 4곳,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300곳

등 13개 사업에 452억원을 투입한다. 또 식품산업 강화를 내걸고 향토산업 육성 18곳과 친환경농식품 제조·가공시설 14곳 등 10개 사업에 294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전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확충과 마을 반찬 제조시설 10곳 등 8개 사업에도 102

억원을 투자한다. 이외 도내 우수 농산물 판촉과 홍보사업 등 17개 사업에 37억원, 도내 초중고교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비도 444억원을 책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차 농산물 생산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위주의 제조 판매를 위해 유통·가공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명품 녹색탐방길’ 42km 만든다

보성 활성산성 편백숲·영암 왕인유적지 등 4곳

전남도는 보성 활성산성 편백숲과 영암 왕인문화유적지 등 도내 4곳에 체험형 녹색탐방길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길 조성사업은 지역민 여가 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 소득 창출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영암 왕인문화 체험길과 활성산성 이외에 장흥 천지인 돌레길, 곡성 삼진강 돌레길 등 4곳이 밝혀 국비 1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암군 왕인문화 체험 길은 군

서면 인근 탐방로 6km가 왕인박사유적지, 구림 한옥마을을 거쳐 월출산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품길로 만들어진다. 장흥군 정남진 천지인 돌레길은 15km의 길이로 장흥읍 일대에 조성되며 정남진 토요시장 체험과 탐진강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곡성군 오곡면과 목사동면 일대에 조성되는 15km의 삼진강 돌레길은 기차마을 체험코스과 연계해 삼진강과 보성강 풍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다.

보성군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은 6km 규모로 한국차 박물관과 활성산성 편백나무 삼림욕장 체험공간을 연계해 두광만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다. 전남도는 이들 녹색길 조성사업에 올해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녹색길을 콘크리트 포장 없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를 최대한 고려해 새로운 여가문화 수요를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 30억 확보

F1대회 인력 양성 등 19건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F1대회 인력 양성 등 19건(국비 30억원)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사업에는 도 주관 사업으로 ▲광양년 철강·조선산업 인적자원 개발 7억원 ▲F1대회·해양레저산업 인력 양성 3억원 등이 뽑혔다. 시군 주관사업에는 ▲나주혁신도시 시군 기능인력 양성 4억원 ▲강진청사 자민인양성 2억원 등이 선정됐다. 2년째 지정받은 F1대회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해에도 전문과정을 수료한 14명이 2011 F1 대회 운영요원에 선발돼 활동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L그룹 구멍 로비

이상득 의원 금주 소환

이국철(50·구속기소) SL그룹 회장 구멍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뿌린 로비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구속기소)씨에게 검찰수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만큼 이 돈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NC (www.oknwood.com) featuring interior design services, furniture, and real estate listings in various districts like Panknaru and Chinhaeng.

Advertisement for Hyeon-dong Public Housing (현대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housing options, including general housing, land, and commercial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offering real estate investment and management services.

Advertisement for Daedong Real Estate (대인동심일부동산) highlighting thei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